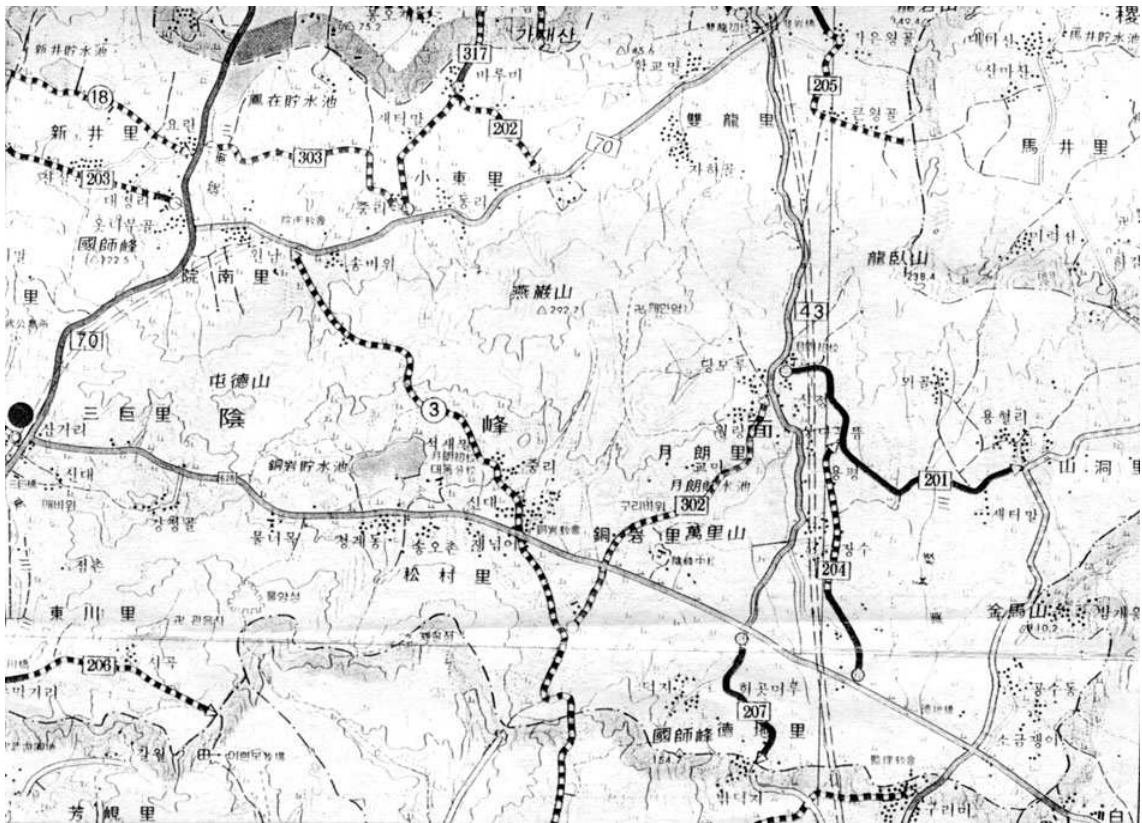


## 산동리·山洞里

산동리는본래 아산군 일동면의 지역으로서, 못골 또는 산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용혈리 공수리 동지리 일부와 천안군 환성면의 공수리를 병합하여 산동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산동리는 5개리로 분리되는데 1리는 용혈리, 2리는 공숫골, 3리는 뽕골, 4리는 장미아파트, 5리는 삼일아파트로 나뉘며 산동리의 총인구는 4,695명이며 총 가구 수는 1,585가구로 이중 14%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산동리 위치도>



### ☒ 용혈리, 공숫골, 뽕골, 장미아파트, 삼일아파트 마을

산동1리(용혈리)마을은 미륵산과 구좌봉이 위치한 비산비야에 농지가 광활하고 산세 수려한 마을 입구에 가로지른 울지천에 흐르는 장류수가 악취를 세류하며 금마산이 방어하며 굽어 보는 남쪽을 향한 양달진 안락한 마을이며 임진왜란 때 낙향한 서인들이 정착하여 형성된 마을로 그 당시 행정상 명칭은 온양군 일동면 산동리로 불려왔고 유래된 전설에는 미륵산 중턱에 천연적으로 뚫린 미상의 동굴이 있어 용이 나서 비상천하였다고 용굴이라고 하며 마을 앞에 논에 샘이 있고 용이 나왔다하여 용난샘이라고 하고, 들 이름도 용꿈에 라고 하며 마을 이름또한 용혈리라고 한다.

산동2리(공숫골)은 옛날부터 산이 많고 숲을 많이 구운다고 해서 공숫골이며 천안과 경계가 된다.

산동3리(뽕골)는 용와산 남향쪽으로 위치한 계곡이 많고 산세가 복잡한 산골 마을이며 산세에 따라 뽕산골곡을 뽕골이라 이름하여 불리어짐.

산동4리는 1998년 2월 산동2리에서 분구되어 장미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산동5리는 4리와 마찬가지로 1998년 2월 산동2리에서 분구된 마을로 중심가에 삼일 아파트

가 있다.

<조사당시 산동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산동리는 용와산과 금마산이 마주 보이는 곳으로 금마산 아래쪽에 율지천이 흐르고 628도로가 나 있다. 음봉면의 월랑리 옆마을로 천안과 경계를 이룬다.

2) 현황

인구분포 현황을 보면 산동5리(삼일아파트)가 2,837명으로 가장 인구가 많다. 그런반면 산동3리(퇴골)는 총 52명으로 가장 적다. 생업현황에서도 산동4리(장미아파트)와 산동5리(삼일아파트)가 각각 7%, 2%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으며 산동1리(용혈리)가 가장 많은 90%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경지 현황에서도 1리인 용혈리 마을이 96ha로 가장 넓다.

- 인구분포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용혈리마을	329명	149명	180명
공숫골마을	439명	211명	228명
퇴골마을	52명	29명	23명
장미아파트	1,038명	509명	529명
삼일아파트	2,837명	1,407명	1,430명



용혈리마을	2	20	30	25	55	108	60	19	10
공숫골마을	10	20	30	47	80	120	89	30	13
퇴골마을	3		2	13	5	10	16	3	
장미아파트	308	106	171	292	103	33	15	11	5
삼일아파트	858	184	549	909	216	69	56	32	11

- 성씨별 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심씨	전씨	기타
용혈리마을	16%	24%	8%	13%	8%	31%
공숫골마을	18%	27%	7%	5%	1%	42%
퇴골마을	16%	4%		28%		52%
장미아파트	30%	30%				40%
삼일아파트	30%	30%				40%

- 학생분포현황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용혈리마을	10	10	8	10
공숫골마을	20	15	15	10
퇴골마을	2	2	3	
장미아파트	200	40	18	15
삼일아파트	40	80	50	20

- 최고령자

1리 박종옥씨 87세, 2리 변모돌씨 90세, 3리 강태영, 홍사문씨 78세, 4리 이선녀씨 84세, 5리 김성원씨 86세

- 호당평균소득

1리 년/500만원, 2리 년/700만원, 3리 년/500만원, 4리 년/2,000만원, 5리 년/1,800만원

3) 자연경관

산동1구는 농지가 광활하고 산세 수려한 마을로 금마산을 방어하여 굽어보는 남쪽을 향한 양달진 안락한 마을이며 산동2구는 산동리에서 가장 컸던 마을로 천안과 경계가 되며 산동3구는 산동1구에서 고개 하나만 넘어 15분정도 걸어가면 작은마을이 보이는데 이마을이 퇴골이다.

그리고 4리와 5리는 2리에서 분구된 마을로 아파트촌이다.

4) 마을 변천과정

본래 아산군 일동면의 지역으로서, 못골 또는 산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용혈리 공수리 동지리 일부와 천안군 환성면의 공수리를 병합하여 산동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입됨.

5) 입향

용혈리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성씨로는 심씨이다.

## 6) 지명

공숫골 : 산동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못 골 : 원래의 산동리를 일컫던 말

새 터 : 용혈리 남쪽에 새로 된 마을.

아산뜸 : 공숫골 서북쪽의 마을. 전에 공숫골이 아산과 천안의 땅으로 갈라 졌을 때 아산땅이 되었음.

용 혈 : 못골 동쪽에 있는 마을 .용화산 용굴의 동쪽이 됨.

천안뜸 : 공숫골의 남쪽의 마을. 전에 공숫골이 천안과 아산의 땅으로 갈라 졌을 때 천안땅이 되었음.

이무기굴(용굴) : 용화산에 있는 크고 긴굴. 옛날 이무기가 나온 굴이라 하는데 하도 길어서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혹은 서해로 통하였다 한다.

은행나무 : 공숫골에 있는 큰 은행 나무. 둘레 두어 아람이 되는 데 그 나이는 몇 백년이 되었는지 알지 못함.

산동리 사지 : 뫼골 마을 북쪽에 절터가 있음.

## 7) 전설

산동리에는 열녀 정문 사적기가 있는데 비문내용은 열녀증승훈랑사헌부 감찰심해처정씨지려이다.

내용은 선조30년(1597)왜군이 재침하여 사헌부 감찰이신 심해의 처 동래 정씨께서 전라도 영광 칠산해상으로 목선을 타고 피난을 가시다가 돌연히 왜적을 만나 화(강간)를 당하게 되자 같은 배에 탔던 12열부를 모아 놓고 왜놈에게 욕을 당하느니 절개를 지키고 죽는 게 낫다고 하여 데리고 가던 중 복이 할머니에게 세 살박이 아이를 맡기고 태연히 바다에 뛰어드니 같은 배에 탔던 12열부가 따라서 바다에 뛰어들어 절개를 지키고 익사하였다. 이 중요한 내용은 신숙 삼강 행록열려편과 조선 왕조실록 숙종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후 복이 할머니께서 천우신조로 지성과 정성을 다하여 키운 아이가 청송 심씨 13세이신 부정공 광림이시다. 역사에 길이 빛날 이 장한 사실이 만고에 귀감이 되어 숙종19년(1693년)계유년에 상지 특명으로 열려문이 하사되었다 한다.

##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산동1구에서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1년에 한번 제를 지내고 있으며 년에 한번 효자 효부를 선정해 상을 준다고 한다.

산동리도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노인분들을 잘모시고 있으며 애경사가 생기면 상부상조하며 이웃끼리 친목을 다지고 있다.

##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이 마을에서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 10) 종교단체

산동제일교회 음봉면 산동812번지 목사 성동철 종파 : 장로교

## 11) 공장현황

이 마을에서 가동중인 공장은 조사 되지 않았다.

## 12) 마을의 특성

산동리는 살기좋은 마을로 유명한데 마을에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1998년 아산시 효도 마을로 지정되어 하사금 2,000만원을 받는등 살기좋은 산동리임을 자부하는 마을이다.